



제인 오스틴, 그녀의 일상기도

스테파니 이지 지음 | CR 번역연구소 옮김 | 홍성사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우수한 회사에 들어갈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지, 또 자식은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며 갖게 하신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언제부터 하며 살아왔을까? 이것은 분명 태초부터 이어진 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또 그가 하와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무수한 관계 안에서 고민을 해 왔다. 또 원죄를 지은 후, 인간의 죄성이 점점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먹고사는 것에 많은 근심을 품고 살아왔다. 그것은 역시 제인 오스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은 실상이다.

이 책은 흥미롭게도 먼저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발췌하고 그것을 작가가 유추하는 방식으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흐르는 인생 전반의 문제들, 즉 연애와 결혼, 직업, 각자의 역할, 관계, 물질 지향적인 세대 등을

성경과 연결시켜 104편의 목상록을 실었다.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제인의 성격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인 황금률로 설명할 수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제인은 한 가지 단순한 철학에 의해 이러한 진실을 실천한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주어야 한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용서와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p 40

저자는 〈오만과 편견〉의 제인의 성품과 행실을 빗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외에도 〈오만과 편견〉에서 나온 다양한 인물, 아버지의 무책임함, 어머니의 물질적 탐욕 등의 모습을 성경의 인물과 대조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지양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성과 감성〉의 -제인 오스틴의 많은 작품을 포함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낸 인물의 성격과 행동, 다양한 사건과 성경 속의 그것들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해볼 수 있다.

하여- 지배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존중'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가치 있고 귀하게 높이며, 높이 평가하고, 진실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중략) 그렇다면 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엘리너는 존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다. 사랑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 주는 애정이라면, 존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 평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관심을 부추기면서, 자신은 이미 에드워드의 고상한 인품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개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p 45

특히 제인 오스틴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많은 덕목들을 그의 인물들에 비추어 말했는데, 위의 단락에서 나오는 존중이 그렇고, 그 외에도 겸손과 순종, 가난한 심령, 진실, 거룩한 덕망 등이 그렇다.

또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통해 성직자가 가져야 할 성품부터,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독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책 속의 인물을 쉽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영화, 드라마, 책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엠마>, <맨스필드 파크>, <노생거 사원>을 읽으면 그 깊이는 몇 배나 될 것이다.

작가가 만든 모든 인물과 배경, 사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역할이라도 그냥 지어진 것 없이 각기 타당한 목적이 있다. 매우 사소한 사건 역시 그 안에 작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상황을 그냥 두는 법 없이 모두 간섭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낸 인물의 성격과 행동, 다양한 사건과 성경 속의 그것들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해볼 수 있다. 또한 책의 앞과 뒤에 실린 제인 오스틴의 기도문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 기도는 제인 오스틴 뿐 아니라 그의 소설 속 모든 인물의 기도이자 우리 일상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 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하루 동안 무엇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글 | 이효민

중앙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MBN과 극동방송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다.